

제지술의 한반도 전래

潘吉星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교수)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으며 한반도의 역대 정권과 중국은 서로 빈번한 내왕 및 경제 문화적 교류를 진행해 왔다. 한국의 제지기술은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종이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초기 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헌 기록은 충분하지 못하다. 필자는 얼마간의 고고학적 발굴과 당시 역사 사회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 점에 대해 한국의 학자들과 토론해 보고자 한다.

기원 3세기는 중국의 진·한(秦·漢)시기로 한반도의 북방은 고조선 통치의 후기이고 남방에는 삼한(三韓), 즉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이 나누어 통치하던 시기이다. 마한은 반도 동남쪽 한강 하류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면적이 가장 크고 진한은 동남 경주(慶州)일대에 위치했다. 한편 변한은 한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낙동강 하류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기원전 206년 중국의 한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 기원전 256-195년)은 중국을 통일한 뒤 노관(盧綰)을 연왕(燕王)으로 봉했는데 그 관할구역이 고조선과 인접해 있었다. 기원전 195년 연왕이 반역하자 연나라에는 동란이 일어났고 그 장군 위만(衛滿, 기원전 230-150년)이 부대를 거느리고 고조선으로 왔다. 그들은 고조선 경내 동남부에 자리 잡고 살았다. 다음해(기원전 194년) 위만은 고조선 정부를 뒤엎고 위씨(衛氏)정권(기원전 194-기원전 108년)을 세웠는데 그 영토가 한반도 북방, 지금의 평양 부근 지역이었다.

기원전 140년 한나라 무제(武帝) 유철(劉徹)이 즉위한 후 위씨정권은 주변의 부족들이 한나라와 왕래하는 것에 위기를 느끼고 저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제는 원봉(元封) 3년(기원전 108년) 수륙으로 부대를 파견해서 위씨 정권을 소멸시켰다. 그리고 그 곳에 낙랑(樂浪)·임둔(臨屯)·현토(玄菟)·진번(眞番) 4군을 설치하여 유주(幽州) 자사부(刺

史部)의 아홉 부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¹⁾ 그 뒤, 한나라 소제(昭帝) 시원(始元) 5년(기원전 28년)에는 4군을 합쳐서 다시 낙랑과 현토 2군으로 만들었다. 한나라가 한반도 북방에 군현을 만들고 또 합치는 이 시기에 많은 관원, 학자, 병사, 장인, 농민, 상인들이 이 곳에 들어와 정착해 살았다. 그들은 한문(漢文)과 유학, 그리고 종교 등 한나라의 문화와 과학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전파했다. 반고(班固)의 『전한서』(83 권 28 「지리지하」)의 기재에 의하면 낙랑군(지금의 평양지역)에 모두 25개의 현, 40만의 인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요동(遼東)의 인구보다 많은 것인데 그 중 대부분이 한족으로 경내에서 한어가通行되었고, 각종 문화 행정시설은 중국내지의 그것과 같았다고 한다. 20세기에 들어 낙랑의 고분군이 발굴되면서 한나라의 견사(絹絲), 칠기, 동철(銅鐵)로 된 기물 등이 대량 출토되었다. 현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중국 내지에서 들여온 것도 일부 있다. 심지어 중국 서쪽 지역인 광한군(廣漢郡)과 촉군(蜀郡, 지금의 四川)에서 온 것도 있었다.

최근 70여 년 동안 중국 서북의 신강(新疆), 감숙(甘肅) 등지에서 누차 전한의 마지가 출토되었고 또한 마지가 당시 현지의 관원, 거류민과 주둔하고 있는 병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낙랑에서도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마지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안(長安)에서 낙양으로, 다시 낙랑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강, 감숙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거리가 가깝고 시간도 적게 걸렸을 것이다. 낙랑의 인구 밀도가 중국의 서북 지역보다 높는데 이는 종이의 수요량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고고 발굴에서 종이 제품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정리 수거를 잘 하지 못했었다.

1964년 전후하여 조선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고고학자들이 평양 부근의 고분에서 엮은 황색을 띤 거칠고 두꺼

운 마지 한 장 발굴한 바 있다는 보도를 했다.²⁾ 하지만, 이 종이의 발굴과정과 이에 관련된 보고는 아직 들어보지 못하고 다만 1966년에 출판된 『조선문화사』라는 책에서 종이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놓았을 뿐이다. 종이의 부장(附葬) 연대도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한 학자가 이에 진일보 조사한 뒤 그 종이는 평양 정백(貞柏)동 2호 고분에서 발견되었으며 같은 곳에서 “부조장인(夫祖長印)” “고상현인(高常賢印)” 등의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묘의 주인은 고상현일 것이라는 보충보고를 한 바 있다. 또한 같은 곳에서 출토된 기물에 “영시 3년 12월 정광이 만들다(永始三年十二月鄭廣作)”라는 금석문이 새겨있었다고 한다.³⁾ 영시(永始)는 한나라 성제(成帝, 기원전32-기원전 7년)의 연호인데, 영시 3년 12월은 마땅히 기원전 13년 12월이다. 묘지가 전한 후기 낙랑군의 고분이고 보면 출토된 마지는 웅당 기원 1세기 전한 말기⁴⁾의 것으로 1973년 감숙성의 한나라 金關지역에서 출토된 마지와 동일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낙랑 고분(漢墓)의 묘주 고상현은 죽은 뒤 생전에 사용하던 관인(官印)까지 부장품으로 입장되어 있어 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나라의 제도에 의하면 비교적 큰 현의 행정장관을 현령(縣令)이라고 했는데 그중 만호(萬戶) 이하의 장관을 현장(縣長)이라고 한다. 부조(夫祖)현은 낙랑군의 25개 현 가운데 가장 작은 현으로 그 곳을 주관하는 고상현은 “부조장인”이라 했을 것이다. 낙랑군의 태수라든가 각 현의 현령, 현장은 모두 한나라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고 그 자료를 조정에 보내어 문서로 남기었다. 이번 고고학적 발굴은 적어도 기원전 1세기 경에 한반도의 북방 낙랑군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당시 중국은 종이를 대쪽을 병용하던 시기가 낙랑에서도 이런 사정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제지기술의 해외전파는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 제품이 먼저 전해지고 나중에 제지기술이 해외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반도에서 종이를 만드는 일도 종이가 먼저 들어와 사용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

음에 시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이에 대한 수요량이 점차 높아지고 중국내지에서 공급되는 종이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종이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랑군 경내의 한인(漢人)들은 농사를 짓고, 누에를 쳐서 방직하고 술을 빚고 구리와 쇠를 녹여서 도구를 만들고 건축하는 등 농공업(農工業) 생산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 생산된 제품은 자신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외에 한반도 남방의 삼한 지역에 보내기도 했다. 당시 낙랑의 의사는 개업하여 병을 보고 교사는 학생에게 한자와 유학을 가르치고 스님이나 도사는 종교 활동에 종사했다. 한나라의 문화, 과학기술, 전장(典章)제도 등은 기원전 2세기 이래로 낙랑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끊임없이 전파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문(漢文), 한적(漢籍), 유학사상의 전파는 한반도의 문화적 발전을 촉진시켰고 기원전·후로 하여 한민족(韓民族)은 한인(漢人)으로부터 제철기술을 도입하여 농업, 수공업에서 응용함으로써 사회 생산력을 높이고 병기제작에 응용하여 군사 작전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상술한 등등에서 우리는 한반도 내의 봉건화(封建化) 과도기를 촉진시킨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기원전 1세기 중엽, 낙랑을 반대하는 세력 가운데 고구려가 북방에서 일어났고 남방의 삼한 정권도 역시 점차 와해되어 백제, 신라가 그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세력들은 점차 강대해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정립(三國鼎立)의 구도를 형성했으며 그 지속기간이 600여년에 달했다. 역사적으로 이를 “삼국시대”(전 57-후 668년)라 부른다. 사실상 신흥 봉건정권으로서의 삼국은 서로 대치되어 있는 구도 속에서 각자 경제, 문화와 건설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1-4세기 동안에 중국에서는 전한, 후한이 교체되고, 위·촉·오(魏蜀吳) 삼국과 서진(西晉)과 동진(東晉)의 교체를 이루었는데 이 과정에 전란이 끊임없었고 민생의 고난은 막심했다. 이런 원인으로 적지 않은 중국의 학자, 고승, 장인들이 낙랑으로 피란 유입해 왔었다. 심지어 황실의 후예인 한의 고조(高祖), 영제(靈帝) 후손도 가속을 거느

리고 낙랑에 들어와 정적의 박해를 피한 기록도 있다. 그 중에는 학식이 있고 전문적 기능을 갖고 있는 인재도 있었다. 그들은 낙랑에 유입한 외에 고구려에도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김부식(1075-1151년)의 『삼국사기』(1145년)⁵⁾ 권 16에도 기재되어 있다. 고구려 고국천왕(故國川王) 19년 한의 헌제(憲帝) 건안(建安) 2년(197년)에 중국에서 큰 동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난민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같은 책에는 또 20년 뒤(217년)에 후한의 평주(平州, 지금의遼陽)사람 하요(夏瑤)가 천여명을 인솔해서 고구려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기원 313년, 서진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동쪽에까지 신경 쓸 수 없게 되자 고구려는 이 기회를 타서 낙랑을 수복하고 한반도의 북방을 통일했으며 남방의 신라, 백제와 국경을 인접했다. 이렇게 되자 낙랑에 거주하던 한인과 그 후손들, 그리고 새로 유입한 서진의 유민들은 백제, 신라 쪽으로 이주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다.

4세기에 들어 반도 내의 삼국이 서로 각축하면서 통일을 시도하는 과정에 각자 종합적인 국력을 재고하고 무기정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문치(文治)에 대한 다스림도 강화했다. 고구려는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내왕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사기』 권18의 기재에 의하면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372년) 6월, 전진(前秦, 350-394년)의 통치자 부견(苻堅)은 고승 순도(順道)를 사자(使者)로 파견한 바 있는데 그가 들어올 때 불상과 불경을 지니고 와서 헌납했다고 한다. 5년(375년)에는 또 순도에게 명하여 평양성을 중심으로 초문사(肖門寺)를 창건하는 일을 주관하게 했고 다른 승려를 파견(374년)해서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주관하게 했다. 이것은 불교가 한 반도에 전파되는 모습이다.

한편, 372년 고구려는 태학을 설립하고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중국에서 오경(五經)박사를 초빙해서 유학 경전을 가르쳤다. 또 373년에는 진(晉)의 『秦始律』(268년)을 참조해서 법령을 반포해서 법제 건설을 강화했다.⁶⁾ 학교를 설립하고 교수하자면 유가의 경전을 베껴 쓸 종이 대량으로 필요했고 사원을 창립한 이후에는 불교 경전을

베껴 쓸 서사용지가 필요했으며 조세법을 제정한 뒤에는 호적을 만드는데 종이가 필요했으므로 종이에 대한 수요의 증가하였다. 서진(265-316년) 이전에 낙랑, 대방(帶方)군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중국 내지에서 요동을 거쳐 육로로 운송되었다. 동진(317-420년) 이후에는 낙랑, 대방군이 이미 고구려 경내에까지 판도를 넓혀 고구려에 종이 대량 운송되는 경로를 차단했다. 이에 고구려는 종이의 대량 수요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서 제지 공방을 만들어 종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절약할 수 있어 좋은 것이었다. 고구려는 경내에 유입해 온 중국 북방의 지공(紙工)을 임용해서 이 사업을 맡아 보게 했다. 이렇게 되어 기원 4세기 때부터 고구려에 공장이 제지 작업장이 생기게 되고 한반도에서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백제와 신라는 중국과 접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해상 내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백제는 중국 동부 지역과 바다를 사이 두고 마주보고 있어 해상 교통은 더욱 편리했다. 백제와 신라 경내에는 중국에서 온 유민이 많이 살고 있었다. 역사기재에 따르면 백제는 개국 이래 국사(國史)가 없었는데 근초고왕(近肖古王) 말년에 이르러 한인(漢人) 오경박사 고흥(高興)을 불러서 한문으로 『서기(書記)』를 기록하게 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백제 국사 문헌이라고 한다. 침류왕(枕流王) 원년(384년) 7월 동진의 효무제(孝武帝)에게 사자를 파견해서 방물을 헌납했다. 사신을 파견한 목적은 승려를 파견해서 불교를 전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있었다. 두 달 뒤(9월), 범승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에서 백제로 왔을 때 침류왕은 궁중에서 그를 맞이했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했다. 다음 해(385년) 2월 왕은 한산(漢山)에 절을 세울 것을 명하고 거기에 승려 10인을 두었다. 이것이 백제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시작이다.⁷⁾ 일본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404년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오경박사 왕인(王仁, 369-440년)은 한 고조 유방(劉邦)의 후예로 백제에서 최고 박학의 유학을 전교하는 오경박사로 일찍 『논어(論語)』 등 책을 일본으로 가지고 간 바 있다.⁸⁾ 오경박사의 존재는 4세기 때 백제에 벌써 학교가 있

있고 불교도 잇달아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로써 백제는 고구려에 이어 약 4세기 후반부터 종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와 비하면 신라의 불교문화 교육사업은 보다 늦게 시작했으나 발전은 더 빨랐다. 신라 눌지왕(訥祗王)(417-458년) 때 불승 묵호자(墨胡子)가 고구려로부터 신라에 들어와 종교 활동을 개시했고 소지왕(炤智王, 479-499년) 때 또 승려 아도(阿道)가 일선(一善)군에서 수년간 포교했었는데 그의 제자 세 명이 열심히 포교해서 신도가 점차 많아졌다. 진흥왕(眞興王, 540-576년) 재위 연간 불교는 대대적으로 발전했다. 왕도 금성(金城, 현 경주)에 불교 사찰을 세우고 보통 백성도 출가하면 승려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또 중국 南朝 梁나라에 사자를 보내 각순(覺順) 등 승려를 청해 왔는데 그들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신라로 건너 왔다. 이에 왕은 백관에 명하여 흥륜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불교에 경도된 왕은 만년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는 스스로 호를 '법운(法雲)'이라 했다. 545년 진흥왕은 신하 居染夫에게 명하여 국내 문인들을 모아서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⁹⁾ 이로부터 신라의 제지는 5세기 전반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삼국은 4-5세기 중엽에 이미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20년 일본 학자 深田安吉는 경상북도의 제지 역사에 대한 연구를 행한 결과 신라 전성시기(420년) 경주에서 중국 한나라에서 발명한 제지법으로 종이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동감이다. 그는 또 당시 신라 고분(古墳)에 대한 발굴과정에 옷칠을 먹인 관의 도층(塗層) 밑에 종이로 바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¹⁰⁾ 삼국시기에 만든 종이는 대체로 삼베 꼬투리, 낡은 천 등을 원료로 만들어졌다.

삼국의 영토 다툼은 6-7세기에 들어 더욱 치열해 졌는데 동남쪽에 위치한 신라는 그 중에서 가장 열세에 처해 있다 보니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양쪽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곤경에 빠졌다. 그리하여 643년 신라는 당(唐)에 사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당 고종(高宗)은 원군

을 파견해서 지원했으며 660년에는 신라를 도와 백제를 제거했다.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하고 통일을 가져와 한반도의 삼국시대를 마감했다. 통일된 신라 왕조(668-935년)는 당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수많은 유학생과 승려를 당에 파견해서 당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전면적으로 습득하게 했다. 제지사의 시각에서 볼 때 수·당(隋·唐)시기의 마지는 역사상 가장 발달한 시기로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바야흐로 그 역사사명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것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피지(皮紙), 특히 닥나무껍질을 재료로 하는 피지가 대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닥나무종이는 매끄럽고 섬유가 세련되고 윤기 도는 것이 마치 잠사(蠶絲)같아 특히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닥나무종이는 '저국공(楮國公)' 이는 존칭까지 얻으면서 문방의 일품으로 환대 받았으며 닥나무종이에 먹을 날리는 것이 당시 문인들의 하나의 기호가 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은 신라에까지 전해졌고 신라사람들도 수·당의 피지 기술을 이용해 닥나무종이를 만들어서 마지와 겸용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종이 역사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맞이했다. 이 시기에는 제지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물도 유전되고 있어 상고하기 쉽다.

닥나무 종지와 관련해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서울호암미술관(漢城湖巖美術館)에 소장된 천보(天寶) 14년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인데 모두 10권이다. 흰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인데 그 중 권 10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754年8月23日)初, 乙未載二月十四日(755年3月30日)一部周了內成之. 經成內法者, 楮根中香水散系生長. 令內彌然後中若杆皮, 練那紙作泊土. 紙作人仇叱珍兮黃珍知奈麻.”¹¹⁾

인용문은 신라에서 만든 '이두(吏讀)문'으로 기록한 것이다. 신라는 당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보(天寶)'는 당 현종(玄宗)의 기년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 13-14년(754-755년)에 해당된다. 기록의 내용은 대체

로 “754년 8월23일부터 755년 3월30일까지 ‘화엄경’ 한 부에 대한 사경을 마쳤다. ... 사경의 제법(製法)은 향수를 닥나무의 수근부위에 뿌리고 나무가 자란 다음 베어다 그 껍질을 벗겨서 흰 종이를 만든다. ... 종이를 만든 사람은 장성군(長城郡) 진면(珍面)의 ‘황진지내마 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신라의 지공 황씨의 닥나무를 심는 법, 닥나무껍질로 종이를 만드는 법은 50여 년 전의 중국의 화엄종 조사 법장(法藏, 643-712년)의 『華嚴經傳記』(702년) 권 5의 서술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정주(定州)의 중산선사(中山禪師) 수덕(修德)이 산림 속에 들어가 도를 닦다가 영휘(永徽) 4년(653년)부터 뜰에 닥나무를 심어 3년이나 걸렸는데, “향수를 뿌려서 깨끗이 처리하고 종이를 만들었다.” 그런 연후에 서예의 명수(名手)를 불러 『화엄경』을 베끼도록 했다는 것이다. 법장은 또 당나라 초기 천수(天水)의 덕원(德元)이란 승려도 『화엄경』을 업으로 ‘정원(淨園)을 만들고 닥나무를 심고 향수를 뿌려서 원내 향내가 진동했으며 다시 닥나무껍질을 벗겨서 향수에 담근 다음 종이를 만들었는데 해를 넘겨서야 완성했다고 말했다.¹²⁾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 줘야 할 것은 당나라와 신라의 승려가 향수를 뿌려 닥나무를 심고 다시 향(香)종이를 만들어서 『화엄경』을 베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지 보통 종이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종이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니까 말이다.

당나라 목종(穆宗) 장경(長慶) 원년(821년) 신라 종이는 ‘공물’로 당에 보내진 바 있는데 이는 신라 종이의 품질에 큰 혁신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당시 이름 있는 종이라는 ‘백추지(白樺紙)’가 꼽히는데 이 종이는 표면이 반듯하고 매끄럽고 밝은 빛을 띤 것이었다. 1940년대 경주 남산의 석탑 안의 금동사리함(金銅舍利函)에서 신라시대의 종이로 쓴 범한다라니(梵漢陀羅尼) 한 장이 발견되었다. 이 종이는 처음 충독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1945년 이후 없어졌다. 그 뒤 1996년 경주 나원리(羅原理) 석탑사리함에서 그와 동일한 흰 색 닥나무종이에 베껴 쓴 다라니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신라의 유물이었다.¹³⁾

9세기 이후 신라가 점차 쇠퇴하면서 봉건 영주(領主) 왕

건(王建, 877-943년)이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935년, 그는 신라를 철저히 멸망시키고 왕씨 고려(高麗, 918-1392년)정권을 세우고 통일 반도의 새로운 왕조통치를 개시했다. 고려시기에 닥나무종이는 압도적인 서사용지로 부상했고 한편 닥나무 종이는 한국 종이의 특색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계속하여 토론하겠다.

고려 종이는 특히 동시대 조선과 중국 사대부의 총애를 받았는데 한반도는 그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삼국시기부터 제지기술을 발전시켰고 다시 이 기술을 일본에 전파했다. 중국의 제지기술을 동쪽으로 일본에 전파시키는데 한국이 중개역할을 했으며 그 역사적 공헌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 1) 班固(漢), 『前漢書』(83) 卷95, 『朝辭傳』, 卷28 下, 『地理志』, 下, 二十五史 縮印本 第一冊(p.358)(上海古籍出版社, 1986).
- 2)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문화사』 권1, p.50 (평양, 외문출판사, 1966)
- 3) 조형근, 『한국전통기술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韓紙分野』, pp.23-24(서울, 1996)
- 4) 潘吉星, 『中國古代四大發明:源流,外傳和世界影響』, p.361(中國 合肥:中國科技大學出版社, 2002)
- 5) 金富植, 『三國史記』, 卷 17「高句麗本紀」第2冊, pp.80-87(東京, 平凡社, 1983)
- 6) 金富植, 『三國史記』, 卷 18「高句麗本紀」第2冊. pp.125-126.(東京, 平凡社, 1983)
- 7) 金富植, 『三國史記』, 卷 24 「百濟本紀」第2冊, pp.314-317.(東京, 平凡社 1983)
- 8) 舍人親王(奈良朝), 『日本書紀』(720년) 권10, 『應神記』第2冊, pp.204-206, pp.512-513, (東京, 岩波書店, 2000); 太安万呂(奈良朝), 『古事記』(712년) 卷中, 『應神記』, p. 145, p. 276(東京, 岩波書店, 1999).
- 9) 金富植, 『三國史記』,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第1冊, pp.100-102; 卷4, 第1冊, pp.104-105, (東京, 平凡社, 1983)
- 10) 關義城 『水滸紙史の研究』, p.372(東京, 木耳社, 1976)
- 11) 文明大, 『新羅華嚴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14, p.31, 1979; 朴相國 編 『韓國의 書文化特別展』,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3), pp.20-21.
- 12) 法藏(唐), 『華嚴經傳記』(702년) 卷五, 『書寫第九』, 高楠順次郎 主編, 『大正新修大藏經』, 第51冊, pp.170-171(東京, 大正一切經刊行會, 1926).
- 13) 한국문화체육부, 경주 나원리 五層塔 출토 金銅舍利函內 遺物 (1996, 5. 문화체육부 보도자료).